

## Wordsworth의 詩에 나타난 無爲와 恒久의 이미져리

李廷鎬

우리가 시인이나 작가의 작품을 읽고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유의하게 되는 것은, 이들의 작품(특히 시인의 경우에 있어서) 전체를 통해서 되풀이되는 중요한 이미져리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Wordsworth의 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반복되는 중요한 이미져리가 있다는 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Wordsworth의 시를 읽을 때 자주 보게 되는 이미져리는 그 빙도가 아주 찾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져리는 이미져리로서만 존재할 뿐 아니라, 상징성을 띠게 된다. Florence Marsh의 연구에 의하면, Wordsworth의 시에 자주 나타나는 이미져리는 다음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sup>1)</sup> 즉, 그 첫째가 자연의 이미져리이고, 둘째는 사람의 이미져리이며, 그 세째는 소리와, 물과人工구조물의 이미져리이다.

첫째 그룹에 속하는 자연의 이미져리는 우리가 그의 시에서 익히 보는 나무, 돌, 바위, 낭떠러지, 꽃, 푸른 하늘 등과 같은 자연현상의 이미져리이다. 둘째 그룹에 속하는 이미져리는 사람의 이미져리인데, 이들은 대개의 경우에 순박하고, 참을성이 많고, 자연에 의해서 교육되어지는 시골 사람으로 나타나 있다. Marsh의 세번째 분류에 들어가는 이미져리는 ① 물과 ② 사람이 만든 구조물 ③ 음향의 이미져리이다. 물(바다나 강)은 생명의 영원성과 감정이나 사상의 불변성을 나타낸다. 반면, 인공 구조물은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측면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는 도덕성이나 영광 등과 같이 쉽게 몰락하는 속성을 나타내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도시의 항구성을 나타낸다. 음향 이미져리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를 상징한다.

Marsh에 의하면, Wordsworth의 시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이미져리는 그의 감성이 두 가지의 상반된 상태 사이를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상태란 삶과 죽음, 시간과 영원, 생성과 불변 등과 같은 두 가지의 상반되는 상태를 이름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이미져리들은 더 나아가서 恒久性을 상징한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Wordsworth의 시에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이미져리들이 어떻게 해서 恒久性을 상징하게 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특히 필자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주요 시에 나타나는 시인의 의식이 어떻게 변천하는가를 그의 詩語의 발전을 추적하여 아울러 살펴 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Wordsworth가 가지고 있던 恒久性的 개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그의 시에 나타난 恒久性에 대한 생각이 禪의思想과 얼마나 가까운지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Wordsworth의 시에 나타나는 의식과 詩語의 변천의 궤적을 추적한 중요한 연구로

1) Florence Marsh, *Wordsworth's Imagery: A Study in Poetic Vision* (Hamden and London: Archon Books, 1963), p. 103.

서 Frances Ferguson의 저서 *Wordsworth: Language as a Counter-Spirit*을 볼 수 있다.<sup>2)</sup> 이 책에서 저자는 Wordsworth의 詩語를 고찰해 봄으로써, 그가 그의 詩作에 있어 얼마나 詩語에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추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sup>3)</sup> 이러한 추적은 결국에는 Wordsworth의 시에 나타난 언어(詩語)와 그의 의식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된다.

Ferguson은 더 나아가서 Wordsworth 자신이 분류한 자기의 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Wordsworth 자신의 의식이 詩語를 매개로 하여 발전했음을 밝혔다. Ferguson은 이러한 Wordsworth의 매개체로서의 言語를 “정신의 대응”(Counter-Spirit)<sup>4)</sup>이라고 칭하고 있다. Ferguson에 의하면 Wordsworth의 초기시에서는 언어는事物과 일대 일의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된다.<sup>5)</sup> 그러나 그의 “Immortality Ode”에 와서는 Wordsworth의 詩語는 초기시에 나타난事物과 言語의 단순한 일대 일의 관계가 아니고, “絕對의 영역으로의 추구”(excursus into the absolute)<sup>6)</sup>를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의 Wordsworth의 언어는 명확성은 없으나 반면 성숙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예는 Wordsworth 자신이 “Poems founded on Affections”라고 분류한 초기시와 “Immortality Ode”로 대표되는 후기시를 비교함으로써 잘 알 수 있다. 즉, 그의 초기 시에서는 대상이 없어지면 언어의 은유적인 의미가 완전히 상실됨에 비하여<sup>7)</sup>, “Immortality Ode” 같은 그의 후기 시에서는 언어와 대상은 서로 분리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언어는 대상에 대하여 상정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Immortality Ode”에 와서는 언어는 그의 시인으로서의 의식의 탄생에 대한 상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sup>8)</sup> 이처럼 Wordsworth의 시에 나타나는 언어의 성숙과 Wordsworth 자신의 언어에 대한 감수성의 발전은, 그의 시인으로서의 의식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Wordsworth의 시인으로서의 의식의 성장과 시어의 성숙은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이미져리를 추적해 봄으로써 더욱 잘 알 수 있다.

그의 시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미져리는 恒久의 이미져리이다. 이러한 恒久의 이미져리의 대표적인 예로서, “A Slumber Did My Spirit Seal”的 마지막 줄에 나오는 “바위와 돌과 나무”<sup>9)</sup>(rocks, stones, and trees)의 이미져리가 있다. 이와 같은 자연의 이미져리는 자연물로서의 의미 이상을 상정한다. 이들은 자연속에 在在해 있는 “살아있는 存在”<sup>10)</sup>(Living Presence)를 상정한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自然物은 자연 속에 살아 있는 生命力

2) Frances Ferguson, *Wordsworth: Language as Counter-Spirit*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77).

3) Ferguson, p. xvii.

4) Ferguson, p. xvi.

5) Ferguson, p. xiii.

6) Ferguson, p. 103.

7) Ferguson, p. xiii.

8) Ferguson, p. 103.

9) *Wordsworth: Poetical Works*, ed. Thomas Hutchinson (Oxford Univ. Press, 1904); rev. and ed., Ernest de Selincourt (Oxford Univ. Press, 1936), p. 149. 본 논문에 나오는 Wordsworth의 모든 시와 preface는 이 책에서 인용한 것임. (필요한 경우에만 page는 본문중에서 괄호 내에 숫자로 표시함.)

10) Jack Stillinger, ed., *Selected Poems and Prefaces by William Wordsworth*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5), p. 45.

의 分身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Lucy는 “A Slumber Did My Spirit Seal”에서 “바위와, 돌과 나무와 더불어/지구의 自轉 속에 돌고 있으므로” 그녀는 永遠(恒久)한 존재로 변한 것이다. “Lucy Poems”중의 다른 하나인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에 나오는 Lucy는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반쯤 가리워져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언제나 恒久의 自然의 일부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때묻지 않고 청순하게 살 수 있었다. 이제 그녀가 죽어 무덤 속에 있더라도 그녀는 변함없이 自然과 하나가 되어 自然의 항구성을 자기 자신속에 實體化하고 있는 셈이다. 그녀는 “모든 사물을 통해 흐르는”(rolls through all things)(“Tintern Abbey,” 1. 102) 생명의 근원 그 자체가 된 셈이다. 이처럼 事物의 밑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Wordsworth의 생각은 그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I was often unable to think of external things as having external existence, and I communed with all that I saw as something not apart from, but inherent in, my own immaterial nature.<sup>11)</sup>

이처럼 워즈워쓰는 자신의 영혼을 통해 흐르는 우주적인 생명력을 깊이 느꼈으며, 그의 이러한 생명력에 대한 통찰은 자기자신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까지도 자신 속을 흐르는 생명력과 연결돼 있다는 신념을 갖게 했다.

워즈워쓰의 시에 나타난 恒久를 나타내는 이미져리는 위에서 든 자연의 이미져리 말고도 물의 이미져리가 또한 두드러진 것이다. 물은 흐른다. 생명도 흐른다. 이 두 가지는 흐른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恒久하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워즈워쓰의 “Michael”에 등장하는 Michael이 연로하지만 아직도 정정하고 퉁퉁한 것은, 그의 아들 Luke의 몸에 흐르고 있는 젊은 피 때문이다. Luke는 이러한 의미에서 Michael의 분신이며, 또한 Michael의 일부인 것이다. Luke가 도시로 떠나고 나서, 그의 아버지인 Michael과 서로 정신적인 유대를 끊게 됐을 때, Michael은 더 이상 그의 아들의 뜨거운 피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피가 생명의 물로 나타나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없겠다). 또 다른 물의 이미져리를 우리는 “Resolution and Independence”에 나오는 거머리를 채집하는 노인에게서 볼 수 있다. 이 노인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자기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생명의 근원인 물과 항상 연계를 맺고 있으며, 매일 매일 이러한 생명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다른 시인 “The Daffodils”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시인은 생명력과 유리돼서 “하늘 높이 골짜기와 산위를 떠도는/ 구름처럼 외로이 헤맸다.” 그러나, 그는 문득, “수없이 많은 금빛 수선화가/호수가 나무아래 미풍에 한들 한들 춤추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시인은 이 즐거운 동무들 속에서 즐겁지 않을 수가 없어서, 수선화들을 보고 또 보았다. 여기에 나타난 수선화 나무가 있는 곳의 위치를 우리는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호수 옆에 서 있으며, 호수는 바로 생명의 원천인 물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 호수 옆에서 생명의 근원을 항상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선화와 나무를 보고, 시인은 다시금 생명과의 연계를 느끼게 되고, 생명의 용솟음을 느끼게 된다.

11) David Perkins, *The Quest for Permanence: The Symbolism of Wordsworth, Shelley, and Keat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9), p. 60.

우리는 위에 든 것과 비슷한 물의 이며져리를 “Immortality Ode”에서도 볼 수 있다. 이 Ode의 주요한 이며져리 중의 하나도 물의 이미져리이다. 시인이 잃어 버린 어렸을 때의 “天國의 빛”(celestial light)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메개체 중의 하나가 물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우리가 천국의 빛과 꿈의 영광과 신선함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를 면 内地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의 물에 대한 동경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고요한 날씨의 계절에  
비록 우리가 먼 内地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온  
저 永生不滅의 바다를 보고  
순식간에 거기로 여행 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해변에서 노는 것을 볼 수 있고,  
永遠히 구르는 强大한 바닷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내겐 피어나는 가장 보잘 것 없는 꽃이/눈  
문 흘리기엔 너무 깊이 깔린 생각들을 줄 수 있노라”라고 노래한다. 여기에 나오는 “피어나  
는 가장 보잘 것 없는 꽃”은 바로 생명의 어머니인 대지에서 생명의 젖줄로 삶을 유지하는  
생명체이며, 이는 곧 생명의 연계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잘 것 없는 꽃이라도 시인과는  
무관하지 않으며, 시인과 이 꽃과의 연계는 곧 시인과 生命의 大地와의 연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워즈워쓰는 우주에 흐르는 영원한 생명력과合一을 이루고 있다. 워즈워쓰는 고독  
과 죽음의 현실 속에서 생명과의 유대를 항상 갈구했다. 물의 이미져리로 상징되는 생명력  
은, 그러므로 시인으로 하여금 사물의 핵심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었고, “자연은 자연  
을 사랑하는 이를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Tintern Abbey,” 11, 122-3)는 신앙을 불러 일  
으켜 주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자연과 인간과의 대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Whitehead가 지적한  
것처럼, 워즈워쓰는 자연의 거대한 恒久性을 그의 뇌리에서 떨쳐내지 못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자연의 恒久性은 人生의 짧은 삶과 아주 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sup>12)</sup>  
시인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거대한 自然과 유리돼 있다는 사실이다. 더  
구나 인간은 자연과 융합돼 있지 못하고, 자연의 침입자로서 존재한다.<sup>13)</sup> 거대한 자연으로  
부터 유리된 인간을 자연과 다시 연계시키는 길은 인간을 恒久的인 自然物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모든 事物을 통해서 흐르는 恒久的인 生命力과 연계될 수  
있다. 自然과 유리된 어른의 상태는 자연과 밀착된 어린이의 상태와 크게 대조된다. 이러한  
한 대조를 우리는 “We Are Seven”에서 볼 수 있다. 이 시에 나오는 話者는 인간이 자연과  
는 아무런 유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체득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이 시에 나  
오는 어린이는 자연과 사람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죽은 형제까지도 이제는 자연의 일부이지만, 그의 의식  
속에서는 별개의 존재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에 나오는 화자와 소녀와의 대화장면  
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 Perkins, pp. 33-34.

13) Perkins, p. 19.

“자매와 형제가, 꼬마 아가씨야, 몇이나 되니?”  
 “몇이 누구요? 모두 일곱이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야릇하다는 듯이 나를 말끔히 보았다.

“우리들 중 둘은 교회 묘지에 누워 있고요,  
 언니와 오빠가;  
 그리고 교회 오막집에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그들 가까이 살아요.”

“너는 뛰어다녀, 내 꼬마 아가씨야,  
 네 四肢는 살아 있어;  
 만일 둘이 교회 묘지에 누워 있다면,  
 너희들은 기껏 다섯이지.”  
 “그들의 무덤은 푸르리요, 볼 수도 있어요,”  
 꼬마 아가씨가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의 도어(門)에서 열 두셋 발자국 가면  
 언니와 오빠는 나란히 있어요.”

이처럼 워즈워쓰에게 있어서 “인간은——특히 시골 사람은——자연(경치)의 일부로서 구름과 언덕과 나무와 융합된 것”<sup>14)</sup>으로 비쳤다. 이렇게 볼때 인간은 자신의 육체속에 하나의 죄수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의 연계속에서 우주와 연결돼 있다.

The ideal is an imaginative union so intimate and complete that the mind, instead of being imprisoned and engulfed in its distinctive human qualities, can virtually absorb the tone and characteristics of nature. Probably this linking is the principal theme of his poetry.<sup>15)</sup>

워즈워쓰 자신도 그의 서정담시의 제2판 서문에서 “인간의 정열은 아름답고 영구적인 自然物과 合致되어 있다”(p. 735)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 온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그의 시가 담고 있는 동양적인 요소 특히 道家의인 요소와 禪의인 요소를 살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道家의인 것과 禪의인 것을 같은 차원에서 보는 이유는, 佛教가 印度에서 발생하여 중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佛教는 중국의 道家의인 요소를 흡수·수용하여, 中國化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禪은 이러한 佛教와 道教의 합성의 산물인 것이다). 우선 道家의 견지에서 보면, 道는 모든 生成의 原理이고, 모든것은 연결시키는 作用이다.

The magnificent Tao is all-pervading.  
 It may penetrate to either this side or that side.  
 All creatures abide with it and grow; none are excluded from it.  
 When its work is done, it does not demand merit

14) Perkins, p. 41.

15) Perkins, pp. 50-51.

It nurtures all things, but does not rule them.<sup>16)</sup>

老子는 우주의 근본원리를 자연발생적인 生命力으로 봤다. 그래서 그는 이를 “道法自然”<sup>17)</sup>이라고 했다. 워즈워쓰가 그의 *Lyrical Ballads*의 서문에서 “Poetry is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p. 740)라고 했을 때, 우리는老子의 “道法自然”과 워즈워쓰의 spontaneous overflow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는 곧 우주적인 生命力에 그들의 사고의 기점을 삼은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력의 바탕에는 人爲的인 것이 아닌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력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적인 生命力과의 交通은 道家에서 말하는 無爲가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Whereas God produces the world by making (*wei*, 爲), the Tao produces it by ‘not-making’ (*wu-wei*, 無爲)—which is approximately what we mean by ‘growing’.<sup>18)</sup>

無爲란 그러므로 우주의 萬物을 통해 흐르는 우주적인 작용의 힘에 자연적으로 합세하는 과정을 말함이다. 이는 워즈워쓰가 그의 “Expostulation and Reply”에서 말한 “wise passiveness”(24行)와 아주 흡사하다.

이렇게 보면, 초기의 評者들이 워즈워쓰의 “Immortality Ode”를 汎神論的인 시라고 비난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워즈워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현세와 내세의 단절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전생과 현세와 내세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시인의 영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곧 모든 사물과 인간이 우주적인 생명력에 의해 분리될 수 없는 연결된 실체들이라는 그의 직관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러므로 워즈워쓰의 시인으로서의 직관은 Platon적인 二元論에 기초한 기독교의 교리와는 상치되며, 오히려 道家적인 우주관에 더욱 가깝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二元論과 道家思想의 근본정신을 우리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Plato conceives of Being as the Idea. The realm of Being, that is, the Forms, or Ideas, is the only reality. Plato's universe is a logical system of ideas, which can only be grasped by the highest faculty of reason.

The reality of *Tao*, on the other hand, is formless and can only be experienced directly and spontaneously through *ming*, or primordial intuition. Discursive reasoning cannot grasp the non-differentiated reality of things.<sup>19)</sup>

이처럼 워즈워쓰의 근본적인 태도는 서양 전통인 플라톤적 二元論의 사고 방식에 기초한 것이기보다는 道家의 존재론에 더욱 가깝다. 이러한 워즈워쓰의 직관은 그의 시적 상상력의 작용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상상력의 작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부분을 *The Prelude* 제 6권에 나오는 Simplon Pass의 장면이다.

16) Chang Chung-yuan, *Tao: A New Way of Thinking* (New York: Harper and Row, 1975), p. 97.

17) Alan W. Watts, *The Way of Zen* (Penguin Books, 1957), p. 37.

18) Watts, p. 36.

19) Chang, p. xii.

Imagination — here the power so called  
 Through sad incompetence of human speech,  
 That awful Power rose from the mind's abyss  
 Like an unfathered vapour that enwraps,  
 At once, some lonely traveller. I was lost;  
 Halted without an effort to break through;  
 But to my conscious soul I now can say —  
 "I recognise thy glory:" in such strength  
 Of *usurpation*, when the light of sense  
 Goes out, but with a flash that has revealed  
*The invisible world*, doth greatness make abode.

.....

The unfettered clouds and region of the Heavens,  
 Tumult and peace, the darkness and the light —  
 Were all like workings of *one mind*, the features  
 Of *the same face*, blossoms upon *one tree*;  
 Characters of *the great Apocalypse*,  
 The types and symbols of *Eternity*,  
 Of first, and last, and midst, and without end. (592~640行) (이태 럭체는 필자의 강조)

여기에서 시인은 우주적인 작용으로서의 상상력에 합몰되어 (*usurpation*) 세상 만물에 대한 감각을 잃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들——세상의 萬物——이 영원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상징으로 존재한다는 계시 (*Apocalypse*)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道家나 또는 禪家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와 흡사하다.

In the traditional Chinese interpretation, *Tao* is the highest attainment of primordial intuition. *Tao* is preontological experience, which is gained through the interfusion and identification of the subjectivity of man and the objectivity of things. This preontological, inner experience is the spontaneous reflection of one's being, which simultaneously transcends both time and space. This inner experience is nameless and formless, yet it is the *fountain of potentiality* from which all things emerge.<sup>20)</sup> (필자의 강조)

Simplon Pass에서의 워즈워쓰의 충격적이고 황홀한 계시의 경험에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의 우주적인 生命力으로서의 상상력의 경험을 그의 시의 많은 곳에서 찾아 볼수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곳은 “Tintern Abbey”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다.

we are laid asleep  
 In body, and become *a living soul*:  
 While with an eye made quiet by the power  
 Of harmony, and the deep power of joy,

20) Chang, p. xv.

*We see into the life of things.*

.....

And I have *felt*  
*A presence* that disturbs me with the joy  
 Of elevated thoughts; *a sense sublime*  
*Of something far more deeply interfused,*  
 Whose dwelling is the light of setting suns,  
 And the round ocean and the living air,  
 And the blue sky, and in the mind of man:  
*A motion and a spirit, that impels*  
 All thinking things, all objects of all thoughts,  
*And rolls through all things.* (45~102行) (필자의 강조)

여기에서 Wordsworth는 우주의活力(Cosmic Life)과 하나가 되어, 세상 만물을 통해 흐르는 생명력을 훠뚫어 볼 수 있는 직관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없어져서, 워즈워쓰 자신이 “하나의 살아있는 영혼”(a living soul)이 되며, 세상의 모든 사물을 통해서 흐르는 생명력을 보고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지에서 “우리는事物 속을 흐르고 있는 생명력을 훠뚫어 보게 된다”(We see into the life of things)고 워즈워쓰는 말한다. 스즈끼는 禪에서의 깨달음의 경지를 “물(物) 자체속에 들어가 사물의 내부로 부터 보는 것”<sup>21)</sup>이라고 정의했다. 위에 인용한 “Tintern Abbey”的 구절들은 워즈워쓰의 이와 비슷한 신비의 경지를 아주 잘 보여준다. 이는 곧 우리의 지성——소위 워즈워쓰가 말하는 meddling intellect——의 거추장스런 사변의 장애 없이 사물의 정수를 훠뚫어 봄이다. 禪의 경우에는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는 오랜동안의 수양을 거쳐 갑자기 오는 것으로, “頓悟”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하이구(俳句)라는 短詩의 형태가 문학의 한 장르로 존재하는데, 많은 하이구 작가들이 이러한 頓悟를 아주 짧은 시의 형태속에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하이구의 대표적인 작가로 바쇼(芭蕉)가 있다. 그는 일본이 낳은 일급(一級)의 하이구작가로서 많은 훌륭한 하이구를 지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하이구는 다음과 같다.

해목은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古池や/蛙飛びこて/水の音)  
 (Furu-ike-ya/Kawazu-tobi-komu/mizuno-oto)

이 짧은 하이구에서 바쇼는 깨달음의 경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우리 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에는 話者가 없다는 점이다. 話者는 이미 우주와 일체가 되어 주체와 객체의 구별을 떠난 초월의 경지에 있다.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상태의 융합이고合一이다. 즉, 생물(개구리)과 무생물(연못), 시간(뛰어드는 동작의 과정)과 공간(연못), 시간과 영원(연못으로 상징되는), 침묵과 소리, 동작과 정지 등이 따로 따로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합쳐지는 것이다. 이는 Christmas Humphreys가 말하는 깨달음의

21) D.T. Suzuki, Erich Formm, and Richard de Martino, *Zen Buddhism and Psychoanalysis* (New York: Marper & Row, 1960), p. 11.

경지이다. 즉 깨달음의 경지는 “분별이 없고, 구별이 없으며, 둘이 하나가 되지만, 동시에 둘로 보이는”<sup>22)</sup> 경지이기 때문이다.

바쇼의 경우보다는 덜 극적이지만, 우리는 워즈워쓰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깨달음의 경지를 볼 수 있다. “Tables Turned”에서 워즈워쓰는

The sun, above the mountain's head,  
A freshening lustre mellow  
Through all he long green fields has spread,  
His first sweet evening yellow (11. 5-8)

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바쇼의 다음과 같은 하이垮와 비교해 보면 서로 아주 비슷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Suddenly the sun rose,  
To the scent of the plum blossoms  
Along the mountain path.<sup>23)</sup>

위의 두가지 인용에서 우리는 해의 이미지가 똑같이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해는 여기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한다. 그러나, 워즈워쓰의 경우에는 시각 이미져리가 더 많이 쓰인데 비하여 (lustre, green, yellow 등) 바쇼의 경우에는 후각 이미져리 (Scent)와 시각 이미져리 (plum blossoms, mountain path)를 써서 더욱 극적으로 깨우침의 경지를 신선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워즈워쓰의 경우에도 “sweet”라는 표현은 시각 이미지를 나타내는 “yellow”라는 말을 수식하지만, 이 표현은 또한 확대되어 후각 및 미각 이미지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쇼와 워즈워쓰는 이미지의 사용에 있어 서로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워즈워쓰의 “Tables Turned”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묘사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의 직관을 잘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And hark! how blithe the throstle sings!  
He, too, is no mean preacher:  
Come forth into the light of things,  
Let Nature be your Teacher.

.....  
One impulse from a vernal wood  
May teach you more of man,  
Of moral evil and of good,  
Than all sages can. (13-24行)

禪에서 깨달음의 경지는 인간의 本性을 쿠뚫어 보는 것이고(直指人心), 속박으로부터 자

22) Christmas Humphreys, *Zen Buddhism* (New York: Macmillan, 1964), p. 108.

23) Richard Lewis, *The Way of Silence; The Prose and Poetry of Basho* (New York: The Dial, 1970), p. 11.

유스러워지는 것이다.<sup>24)</sup> 워즈워쓰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萬物의 빛 속으로 나오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워즈워쓰에게 있어서 직관은 禪과 道家에서의 깨달음과相通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이 주는 지식은 아름답고,  
우리의 참견하는 知性은  
사물의 아름다운 形象을 추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연을) 해부함으로써 죽인다. (25-28行)

이 같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우리는 육체의 눈이 아니고,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되며, 육체의 귀가 아니고 영혼의 귀로 듣게 된다. 워즈워쓰는 영혼의 이러한 경지를 *Tintern Abbey*에서 축복받은 경지(blessed mood)라고 부른다.”<sup>25)</sup> 이처럼 자연과 우주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흐르는 생명력과合一함으로써 워즈워쓰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고, 이는 곧 禪에서의 깨달음과相通하는 점이다. 워즈워쓰는 이러한 자신의 깨달음을 그의 시속에서 恒久의 이미자리로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神秘의 점이, 이 모든 不可解한  
世界의 重荷가 가벼워지는,  
저 축복받은 경지를——애정이 부드러이,  
우리를 인도하여, 마침내는 이 육신의 숨결과  
우리 人間의 血液의 운동조차 정지되어,  
우리가 육체에서 잠이들고, 살아 있는 영혼이 되는  
저 평온한 축복받은 경지를,  
한편 조화의 힘과 歡喜의  
깊은 힘에 의해 고요해진 눈으로  
우리는 사물의 생명을 투시한다.

that blessed mood,

In which the burthen of the mystery,  
In which the heavy and the weary weight  
Of all this unintelligible world,  
Is lightened: — that serene and blessed mood,  
In which the affections gently lead us on, —  
Until, the breath of this corporeal frame  
And even the motion of our human blood  
Almost suspended, we are laid asleep  
In body, and become a living soul:  
While with an eye made quiet by the power  
Of harmony, and the deep power of joy,  
We see into the life of things. (37-49行) (필자의 강조)

24) D.T. Suzuki, et. al., p.114.

25) Hari Ram, *An Introduction to Wordsworth* (Allahabad: Ram Narainlal, 1929), p.87.

위의 짧은 인용문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경지”(blessed mood)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온다. 이처럼 워즈워쓰에 있어서 자연과 우주를 깨뚫어 그 속에 흐르는 生命力を 보는 것은 곧 恒久的인 生命力과의合一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육체에서 잠이 들지 만(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 있게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워즈워쓰의 시에 나타나는 恒久의 이미져리는 Ferguson의 지적대로 단순히 상징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 온 워즈워쓰의 恒久의 이미져리 중에서 특히 물의 이미져리는 이런 의미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